



# Audi Design Challenge

대표 인사말	04
아우디 디자인 철학	06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개요	10
심사 과정 및 시상 내역	14

<b>Music Design</b>	16
심사위원 및 멘토	18
박훈민	20
이은상/손윤지	22
진유석	24
김덕기/김재현	26
<b>Product Design</b>	28
심사위원 및 멘토	30
이재혁/정필권	32
심용우/송영섭	36
정유나/정혜수	40
이호정/이재웅	44
<b>Motion Graphic Design</b>	48
심사위원 및 멘토	50
강석민	52
정부건	56
이다감/이예림	60
고지원/이보경	64
<b>Furniture Design</b>	68
심사위원 및 멘토	70
정필권/이재혁	72
조충희/이보경	76
홍욱	80
이현철	84
수상자 리스트	88



## CEO Letter

안녕하십니까.

Audi Design Challenge 2014에 보여주신 열띤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아우디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Audi Design Challenge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 Audi Design Challenge는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대거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확고한 디자인 철학을 가진 프레스티지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가 한국의 창의적 인재들에게 디자인 영감을 제공하고 서로간에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던 기회였습니다.

작년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올해도 아우디는 한국의 많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Audi Design Challenge를 진행했습니다. 공모작은 '아우디 라이프스타일을 빛내는 디자인' [Illuminate the Audi lifestyle]을 주제로 뮤직 디자인, 모션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등 4개 부문에 걸쳐 모집되었습니다. 지난해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공모전 주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코스 무비 디자인, 액세서리 디자인 부문을 각각 모션 그래픽 디자인, 제품 디자인 부문으로 변경해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작품들은 놀라운 질적 수준과 다각화된 아이디어로 심사위원들에게 행복한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작년의 높은 수준에서도 발전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또한,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감각과 재능뿐만이 아닌, 아우디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 넘치는 작품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Audi Design Challenge 2014 수상자들의 인터뷰와 작품 소개, 작품에 반영된 의도와 디자인 철학, 작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면은 직접 전시장에서 작가와 만나고 작품을 관람하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은 아우디 코리아가 세상에 선보이는 또 하나의 특별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수상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에 더 멋진 작품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디 코리아 대표

Johannes Thammer

요하네스 타머

# A history of success with the four rings. The 105 years of Audi.

## Audi History

### // 아우디, 기술을 통한 진보 105년

100년을 넘어서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세계적인 프레스티지 브랜드 아우디.

처음 자동차가 탄생한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 동안 언제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제시해 왔습니다.

'네 개의 링'으로 불리는 아우디의 엠블럼은 자동차를 고안하고 만들어 낸 선구자 중 한 명인 아우구스트 호르히 August Horch 박사로부터 시작된 아우디<sup>Audi</sup>와 반더러

Wanderer, 호르히<sup>Horch</sup>, 데카베<sup>DKW</sup> 네 회사의 합병

이후 프레스티지 브랜드의 상징이 됐습니다.

아우디는 풀 타임 사륜구동 콰트로<sup>quattro</sup>, 터보 디젤 직분사 엔진<sup>TDI</sup>, 가솔린 직분사 엔진<sup>FSI</sup>, 알루미늄 차체 기술<sup>Audi Space Frame</sup>, 디젤 레이싱카<sup>R10 TDI</sup>의 르망 24시 우승 등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최고의 프레스티지 자동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자동차 브랜드 아우디는 '기술을 통한 진보<sup>Vorsprung durch Technik</sup>'의 역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 // 아우디의 역사는 철학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완벽하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진보를 시작하는 것. 그 끝없는 진보정신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 1921 세계 최초 좌측 핸들 차량을 선보여 운전자의 보다 넓은 시야 확보
- 1923 공기역학 디자인을 위한 윈드 터널 테스트 실시
- 1933 승차감과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륜구동 방식 채택
- 1937 지상에서 시속 400km의 벽을 돌파, 속도의 한계를 극복
- 1938 자동차 측면 충돌 테스트를 실시, 안전의 개념 혁신에 기여
- 1980 세계 최초로 승용차에 풀 타임 사륜구동 콰트로 상용화
- 1989 터보 직분사 디젤 엔진 TDI 개발
- 1993 철보다 가볍고 튼튼한 일체형 알루미늄 보디 ASF 개발
- 2006 디젤엔진을 장착한 레이싱카 'Audi R10 TDI'로 르망 24시간 레이스 우승
- 2009 세계 최초 100% 순수 전기 스포츠카 'Audi e-tron' 콘셉트카 공개
- 2012 아우디 디젤 하이브리드 레이싱카 'Audi R18 e-tron quattro' 르망 24시간 레이스 제패
- 2013 아우디, 르망 24시 레이스 통산 12승 달성
- 2014 아우디, 르망 24시 레이스 통산 13승 달성



# Audi Design Philosophy

## Progressive, Sporty, Sophisticated

아우디의 디자인은 브랜드 핵심 가치를 전달하고 또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곧 인공이기  
때문입니다.

## Attention to detail

아우디의 디자인은 디자이너의 철학을 작은  
디테일에까지 담아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 Pure Design: Less is more

"단순한 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의 핵심이다.  
적은 것이 더 낫다" – 디터 램스

## Premium and Sustainable

수공예 수준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합니다.

## Looking ahead towards the future

'기술을 통한 진보' – 아우디의 브랜드 철학처럼 디자인  
또한 언제나 앞을 향하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 Sporty and Dynamic Proportions,

### Lines, Surfaces

– 모든 디자인 요소가  
아우디의 도전 정신과 역동성을 대변합니다.

## Sensitivity and Emotion

운전자의 예민한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섬세한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 Joy of Use

보기에만 좋은 디자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우디의  
디자인은 뛰어난 기능성을 추구하며 사용자의 즐거움과  
편의성을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합니다.

## Audi design creates emotion and excites!

좋은 디자인은 감동과 흥분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우디의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한 아우디의 끊임 없는 도전은 오늘날 최고의  
프레스티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됐습니다.

혁신의 브랜드 아우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바로  
탁월한 디자인입니다. 아우디 디자인은 '단순한 것이 좋다'<sup>Less is more</sup>  
라는 원칙하에 조용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가는 선 하나까지 모든  
요소가 꼭 필요하기에 그 자리에 존재하는 절제된 디자인은 시대를  
초월한 지성미 및 세련미를 형상화합니다.

아우디 익스테리어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요하네스 샤페르  
Johannes Schafer는 말했습니다. "아우디의 디자인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급속히 변화하지도 않지만, 시간을 두고 볼수록 그  
가치를 느끼게 된다." 아우디는 지금 당장 보기 좋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화려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디자인을 변화시킵니다. 하루가 다르게  
디자인 트렌드가 변하는 요즘 시대에 이러한 노력은 많은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지만, 이는 결국 브랜드 가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우디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모던하고 매력적인  
자동차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러한 아우디의 디자인  
철학은 자동차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뿐 아니라 광고, 인쇄물을  
비롯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 아우디 디자인에 빠져들다

아우디 디자인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발표돼 '더 이상의 자동차 디자인은 없다'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의  
스포츠카 아이콘으로 끝없는 사랑을 받아 온 아우디TT(아우디에서  
생산·판매하는 쿠페와 로드스터)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세대 TT는 '2006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2007 최고의  
자동차 디자인'에 잇따라 선정되며 탁월한 디자인 감각을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았고, 새로운 스포츠카 아이콘으로 각광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이 실시한 '디자인 트로피 2010'<sup>Design Trophy</sup>  
2010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브랜드'<sup>Brand with the Most Beautiful</sup>  
Cars'로 선정된 아우디는 여러 차종에 걸쳐 해외 유수의 디자인  
관련 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아우디 디자인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우디는 2006년 TT와 2007년 R8에 이어  
2008년에도 A4로 3년 연속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타이틀을 거머  
쥐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우디는 외관 디자인을 통해 시각을 만족시키는 것과 함께 별도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촉각팀, 후각팀, 청각팀 등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감성품질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아우디 패밀리 룩, 싱글 프레임

2004년 발표돼 아우디의 새로운 패밀리 룩으로  
자리잡은 싱글 프레임 디자인은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체형으로, 차 전면에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싱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아우디의 이러한 싱글 프레임 디자인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이던, '더블 그릴'에 다이내믹함을 더하여  
다이내믹하면서도 기품이 흐르는 아우디 브랜드 내면의  
힘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정체되지 않고 항상 시대를  
앞서 진보하는 아우디의 역동적인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싱글 프레임 디자인이 적용된 A8, A6, A4 등의 모델은  
세계적 권위의 '아우토니스 디자인 어워드 2005'<sup>Autonis</sup>  
Design Award 2005'의 각 세그먼트 별 최고의 디자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6의 경우 추가로, '2004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sup>The World's Most Beautiful Automobile 2004</sup>  
– 대형세단 부문, '200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sup>Red Dot Design</sup>  
Award 2005'를 수상하는 등 끝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 6월 출시된 '뉴 아우디 A4'를 비롯하여 최근  
출시된 아우디 신차들은 이를 더욱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평하고 넓어 보이도록 부각시킨 전면부 표면과  
엔진후드 위로 유려하게 이어진 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인상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아우디 디자인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해줍니다. 싱글 프레임 그릴이 이전  
모델에 비해 더욱 와이드하게 설계됐으며, 상단 모서리에  
각이 추가돼 다이내믹한 육각형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싱글 프레임 그릴의 고풍택 수평바가 위로는 아우디를  
상징하는 포 링<sup>Four Rings</sup> 로고가 입체적으로 조각된 것처럼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가 새롭게  
디자인된 헤드라이트 역시 눈에 띕니다. 제논 플러스  
헤드라이트에는 첨단 조명 기술이 시각적으로 집약된 LED  
주간주행등이 배열돼 있어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아우디임을  
인식하게끔 해줍니다.

Vorsprung  
durch  
Technik



# Audi Design Challenge

아우디는 처음 자동차가 탄생한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으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세계 자동차 산업과 자동차를 바탕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udi Design Challenge는 이런 아우디의 비전과 철학을 가장 잘 표현한 디자인을 찾아 나선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모전의 가장 큰 목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온 아우디의 도전 정신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Audi Design Challenge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아우디의 디자인 언어를 통해 한국 인재들과 소통하는 동시에, 아우디 디자인 철학과 디자이너의 창조적 재능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Audi Design Challenge는 이전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동적인 '디자인 문화'를 창조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 Audi Design Challenge 2014 : Design to Illuminate the Audi Lifestyle

Audi Design Challenge 2014의 주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아우디 라이프스타일을 빛내는 디자인<sup>Design to illuminate the Audi lifestyle</sup>'로 선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외형 디자인에서 벗어나 아우디의 철학뿐 아니라 동시대의 라이프스타일을 포괄한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브랜드가 개최하는 공모전이 대부분 자동차 디자인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한, 아우디다운 시도입니다.

### // Category & Mento Program

아우디는 운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밀접한 네 개의 디자인 분야인 'Music Design', 'Motion Graphic Design', 'Product Design', 'Furniture Design'을 공모의 개별 부문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가지 부문을 작년과 비교하면 뮤직 디자인, 가구 디자인 부문은 작년과 동일하고 기존의 액세서리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부문으로, 코스 무비 디자인은 모션 그래픽 디자인 부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는 사용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총체적인 감성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아우디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우디와 디자인을 사랑하며, 도전을 향한 열정으로 뭉친 참가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 조건은 바로 전문가의 멘토 프로그램입니다. 총 2단계의 심사과정 중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파이널리스트(본선 진출자)들의 멘토가 되어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파이널리스트들은 아이디어 이상의 실물 모형을 제작해, 2차 심사를 준비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것 또한 디자이너의 핵심 능력이기 때문에 마련한 과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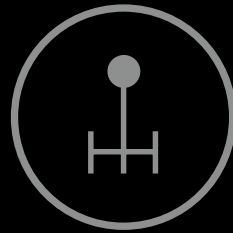
## Progress through Ideas



### The Heartbeat of Audi Music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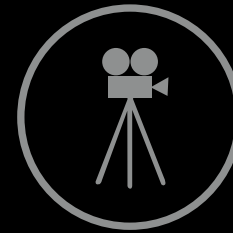
음악은 감동과 흥분을 불러 일으키는 가장 직관적이고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이에 아우디의 브랜드 감성과 가치를 전달할 음악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디자인 철학에 작곡가의 해석이 조화롭게 더해진 음악을 선발했습니다. 1분~3분 이내라는 길이의 제약만 두었을 뿐, 창의적이며 진보적인 음악을 위해 장르나 악기 종류에는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뮤직 디자인부문의 멘토는 호원대 실용음악학부의 정원영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는 교수 이전에 작곡가, 키보드리스트, 피아니스트입니다.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룹 '쉽', '식기시대', '사랑과 평화' 등에서 활동했고, 2012년 6집 앨범 <걸음걸이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Enhanced the Audi Experience Product Design

자동차 브랜드의 품격은 단지 자동차 디자인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품격의 차이는 바로 디테일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둘러싼 모든 제품에 아우디 디자인의 에센스를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아우디의 신념을 기준으로, 아우디의 가치를 품으면서도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자동차 내부나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삽입이 되어야 하는 디자인은 제외했습니다.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의 제품 제안도 포함하나, 콘셉트 디자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했습니다. 멘토는 데이라이트<sup>Daylight</sup> 디자인 디렉터 성정기가 맡았습니다. 2005년 세계적인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IDEO에 첫 한국인 디자이너로 입사해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샌프란시스코의 루나<sup>lunar</sup> 디자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 The Movement of Progress Motion Graphic Design

아우디의 역사는 곧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션 그래픽 디자인부문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발휘해야 할 창의성이라는 아우디의 두 가지 성격을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5분 이내로 제한했으나 장르 및 표현 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광고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빅앤트 인터내셔널의 박서원 대표가 멘토를 맡았습니다. 박서원은 세계 유명 광고제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저서 <생각하는 미친놈>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 A Beauty Beyond the Car Furniture Design

자동차와 가구는 주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디자인적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구 또한 뛰어난 디자인을 선호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아우디의 라이프스타일을 빛내줄 가구 디자인을 모집했습니다. 공모 조건은 부엌이나 침실 등을 제외한 리빙룸 가구 디자인으로 제한했습니다. 멘토는 계원예술대학교 가구디자인과 교수이자 가구 디자이너인 하지훈입니다. 홍익대 목조형 가구학과, 덴마크 디자인 스쿨 가구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 2009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 Judging Process

### // 참가 자격

아우디 디자인 철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다양한 분야에 종사중인 디자이너 및 학생  
(단, 팀은 두 사람 이하로 한정)

### // 심사 과정

-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한 1차 심사 후, 각 카테고리 별 4명(팀)씩 총 16명(팀)의 파이널리스트를 선발
- 선발된 파이널리스트 16명(팀)에게는 각 분야 전문가의 멘토 프로그램이 제공
-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시킨 디자인으로 2차 최종심사를 진행, 각 카테고리당 1명(팀)씩 총 4명(팀)의 최종 우승자 선발

### // 공통 심사 기준

제출된 모든 작품은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크게 다음 네 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 **아우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도 30%**  
아우디의 역사와 디자인 가이드를 바탕으로 아우디의 가치, 타겟과 고객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 평가
- **작품의 독창성 30%**  
작품의 독창성과 실험성, 개성을 평가
- **제시한 작품 콘셉트의 실제적 성취도 20%**  
참가자가 의도한 디자인 콘셉트가 실제로 얼마나 잘 표현, 구현되었는지 평가
- **미적, 질적 완성도 20%**

### // 시상 내역

#### 4 Winners

카테고리별 우승자 4명(팀)에게 각각 상금 2천만 원과 트로피 수여

#### 12 Finalists

우승자를 제외한 파이널리스트 12명(팀)에게는 각각 상금 2백만 원 수여

#### 특전

Audi Design Challenge Exhibition & Party : 수상자를 위한 시상식, 전시 및 파티

\*유의사항 :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입니다.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주최측에서는 수상작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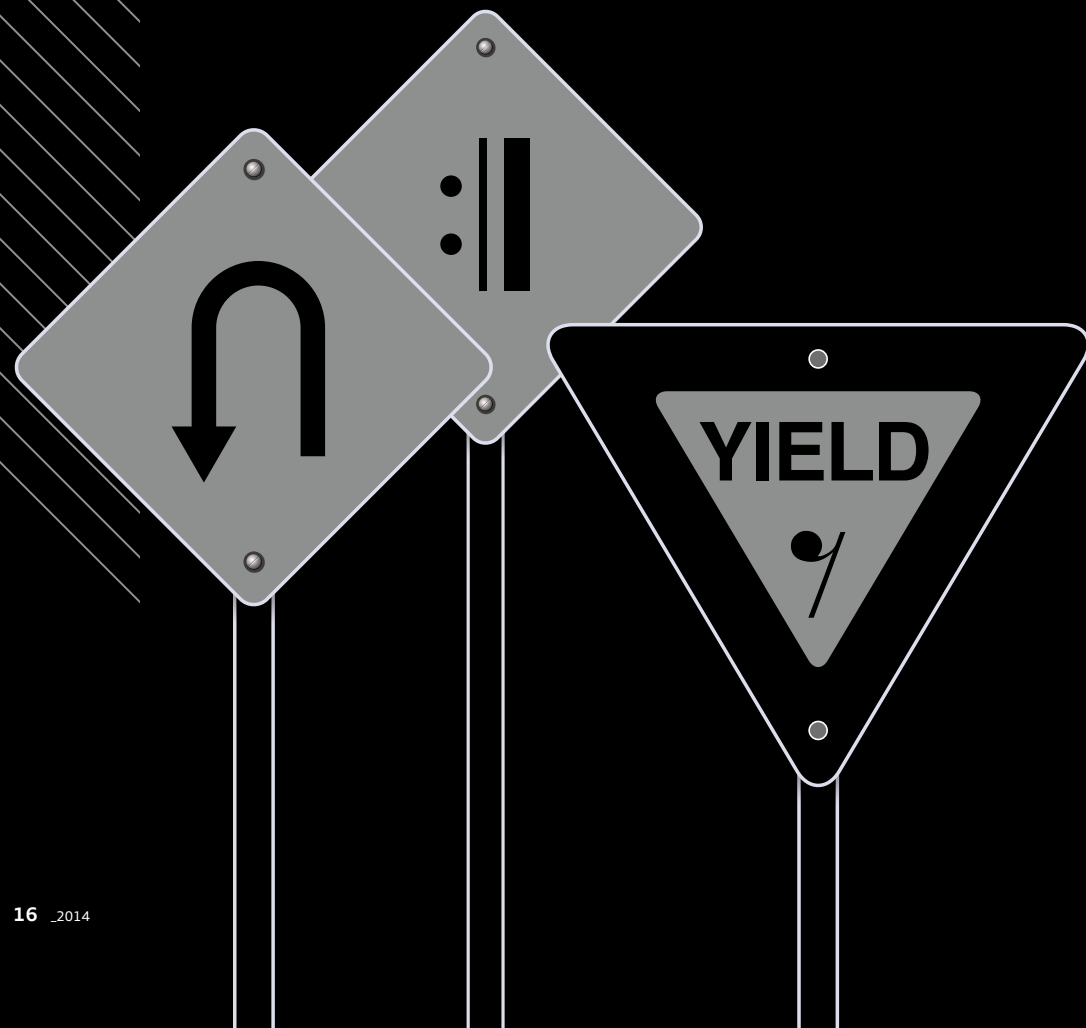
### // 진행 스케줄

개최 공지	2014년 9월 3일
작품 접수	2014년 10월 13일 ~ 19일
1차 심사	2014년 10월 23일 ~ 28일
파이널리스트 발표	2014년 10월 30일
멘토 프로그램	2014년 11월 3일 ~ 6일
2차 심사	2014년 11월 23일 ~ 24일
최종 우승자 발표	2014년 12월 1일



# The Heartbeat of Audi Music Design

with Traffic Sign





# Judges & Mentor Music Design

## Judges

### CHO TEASANG

조태상 모임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JO WALL

조월 모임별 미디어 디렉터

### JIN TAEMIN

진태민 그래픽 감독

### BANG JUNSUK

방준석 음악감독

## Mentor

### JUNG WON YOUNG



정원영 작곡가, 피아니스트.

그룹 '썸', '석기시대', '사랑과 평화' 등에서 활동했고, 이후 미국 버클리 음대를 졸업했다. 2012년 6집 <걸음걸이 주의보>를 발표했으며, 현재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 Judge's Review

“능숙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입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출품작들 중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된 느낌입니다.”

### // Finalists 1차 심사평

진유석의 'World of Audi'는 능숙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입니다. 비슷한 분위기의 출품작들 중 기술적으로 가장 완성된 느낌입니다. 독창적인 진행이 아닌 점은 아쉬우나, 안정적인 전개를 가진 곡입니다.

김재현, 김덕기의 '4seasons'는 밝은 감성으로도 아우디 브랜드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내믹함을 좀 더 가미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은상, 손윤지의 'Warm Thought'는 사람 내음이 나면서도 도회적인 느낌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해집니다.

박훈민의 'Lost in Thought'는 어쿠스틱 드럼의 활용과 앰비언스(ambience) 음색의 능숙한 사용으로, 타 출품작과 차별화된 분위기가 강점입니다. 날것 그대로의 에너지가 매력적이네요. 드럼 플레이가 좀 더 유려해진다면, 곡이 더 살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날것의 음악들을 접하며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음색을 만든 것은 '도전'이라는 공모전의 취지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 Winner 최종 심사평

다양한 색깔의 작품들이 모여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날것의 음악들을 접하며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공모전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작품은 박훈민의 'Lost in Thought'입니다. 곡 자체는 단순하지만 역동적인 드럼 사운드와 음이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앰비언스 음색을 결합시킴으로써 타 출품작과 차별화된 분위기를 주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음색을 만든 것은 '도전'이라는 공모전의 취지와 잘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W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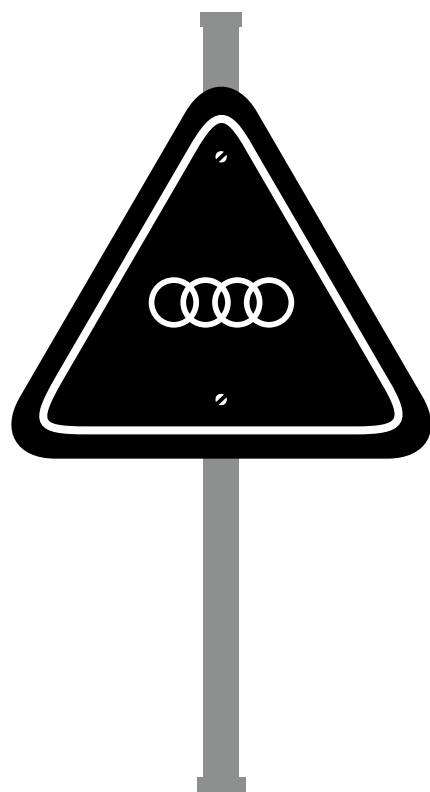
# PARK HOONMIN

박훈민(30) 작곡가, 드러머

박훈민의 Lost in Thought

## 심플함, 진보와 혁신, 역동성, 섬세한 감수성을 담은 사운드

'Lost in Thought'는 아우디 로고인 네 개의 링이 담고 있는 심플함, 진보와 혁신, 역동성, 섬세한 감수성을 부드러운 사운드와 역동적인 드럼 연주로 표현했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화음 패턴 위에 음렬주의 음악 기법으로 만든 독특한 멜로디와 역동적인 드러밍, 몽롱하고 감성적인 사운드로 구성된 'Lost in Thought'은 박훈민의 치밀한 논리와 치열한 철학적 고민 끝에 탄생했다. 이 곡은 시의 은유처럼 사람의 감정 영역을 자극할 많은 감성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다. 드러머이면서 작곡까지 겸하는 음악가인 박훈민은 이 곡이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 감동으로 변화시킬 바란다.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저를 포함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군더더기 없으면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생각할 거예요. 단순한 우아함을 고수하면서도 도전적이고 진보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아우디의 브랜드 철학은 저희 아티스트들의 지향점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미니멀리즘 음악 작법의 토대 위에 즉흥적으로 어쿠스틱 드럼을 연주하고, 총렬주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멜로디를 만들어 낸 후, 신디사이저와 이펙터로 섬세하게 다듬어 완성한 곡입니다.

**QUESTION**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ANSWER** 아우디 로고인 네 개의 원에서 심플한 디자인, 진보적 기술, 역동성, 섬세한 감수성이라는 네 가지 포인트를 떠올렸습니다. 그 네 가지 포인트를 음악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이번에 제가 한 작업입니다.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첫 번째로 한 일은 재료를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료는, 드럼, 신디사이저 등 눈에 보이는 재료가 아닌 개념적인 재료입니다. 제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음악의 사조, 장르들을 되짚어 보면서 음악과 그 음악을 만들었던 음악가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니멀리즘 음악가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우디가 말하는 'Pure Design'과 통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미니멀리즘 음악가들이 사용했던 방법인, 여러 파트를 성부와 섬여림만 달리해서 단순하게 반복하는 아이디어를 이 곡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Post Bop/Modern Creative Jazz, 음렬주의/총렬주의 음악, Post Rock/Dream Pop 음악들과 그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썼던 작법들을 앞서 말했던 네 가지 포인트와 연관지으며 곡을 만들었죠.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야 했다는 점이 좋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재미있는 과정이지만, 제가 원했던 수준에 비해 제 역량이 부족하다는 느낌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각 파트를 만들 때, 여러 번 작업하면서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드럼 녹음만 해도 라이드 심벌 톤을 얻기 위해 마이크 세팅도 여러 번 바꿨고, 리프한 느낌을 내기 위해 한 번에 끝까지 녹음해야 했죠. 작업을 한 번 끝낼 때마다 프로젝트 파일을 새로 만들어 저장하는데, 그렇게 저장한 프로젝트 파일만 해도 60개가 넘네요.

**QUESTION** 공모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ANSWER** 생각이나 이미지를 음악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정원영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ANSWER** 현대음악과 아방가르드 재즈의 언어를 드러머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이성이나 감성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모습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다수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와 닿는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 LEE EUNSANG

이은상(31)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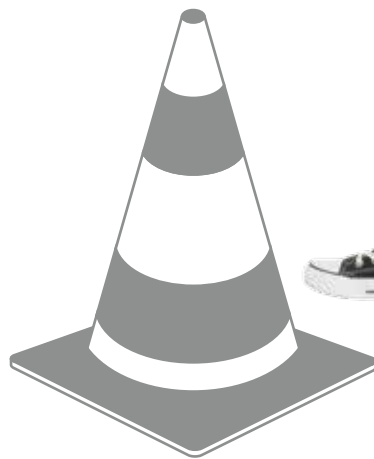
# SON YOONJI

손윤지(23)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이은상, 손윤지의 Warm Thought

## 소리쳐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아우디 브랜드 가치의 힘

105년 전통의 아우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아우디의 심볼과 좋은 외제차 정도의 이미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우디의 역사는 단지 그 정도로 기억될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우디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주입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야기가 당연히 가치있는 것이라 느껴서가 아닐까. 애써 덤덤하게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려 해도 지난 시간들의 진보가 머릿속에, 이미지 속에, 그리고 음악 속에 당연한 듯 점점 커지는 것은 굳이 소리쳐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아우디 브랜드 가치의 힘과, 지금도 계속 그진보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주변에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소 우리가 만든 영상 작업에 대한 피드백은 많이 받아봤지만 음악에 대한 독립적인 피드백이나 반응을 객관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었죠.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에 있는 멘토링이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상 부문이 아닌 음악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보통, 아우디는 사람들에게 좋은 외제차 정도의 이미지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아우디의 역사와 아우디가 발전시킨 현재의 모습이 그 정도의 이미지로 기억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아우디의 가치를 억지로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 실제 아우디를 타봤을 때 우리가 느꼈던 미묘한 긴장감이나 기대감을 먼저 음악에 담아 보았습니다. 드라이브를 하면서 보이는 창 밖의 풍경과 같은 소소한 감정으로 시작해, 점차 아우디 디자인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음악으로 어울리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QUESTION**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ANSWER** 자동차라는 존재는 인체와 가장 가깝고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우디의 철학이기도 하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아우디의 이해에서 출발했습니다.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우리는 20, 30대의 젊은 작업자입니다. 따라서, 윗세대들의 딱딱하고 웅장한 아우디보다는 직접 드라이브를 떠난 것 같은 감성적이고 친근한 느낌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멘토링을 들은 후, 잘 만들어진 '웰 메이드'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래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듣기 좋은 음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QUESTION** 공모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ANSWER** 우리가 듣기 좋다고 느끼는 음악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 작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음악 작업에 대한 이해도도 한층 높아졌어요.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으신지?

**ANSWER** 계속해서 영상 작업과 음악 작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은 음악과 미술 모두를 포괄하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아우디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음악을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 JIN YOUSEOK

진유석(36) 드라마 OST 작곡가, (주)교학사  
녹음실장, 플루토 사운드 음악감독

진유석의 World of Audi

## 강하지만 조용하고 아늑한 아우디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강하지만 조용한 아우디 TDI 엔진, 조용하고 아늑하지만 강력한 아우디만의 성능을 인상적인 드럼 사운드와 함께 부드럽우면서 아름다운 선율의 피아노 연주로 표현했다. 진유석은 부드러운 선율의 표현을 위해 아름다운 하프 연주를 가미했고 아우디의 프리미엄 자동차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을 활용, 강하지만 아늑한 아우디를 표현했다.



**QUESTION** 자기 소개를 한다면?

**ANSWER** 저는 가요와 드라마 음악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악기를 배우고, 여러 장르를 불문하고 음악을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자동차를 아우디 A4로 바꾸면서 아우디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우디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던 차에, 아우디를 소재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공모전을 발견하게 됐죠. 아우디의 음악을 직접 만들어보겠다는 결심으로 참여했습니다.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우선 아우디의 디자인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한,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프리미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도 굉장하죠. 아우디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슬로건에 맞게 콰트로 및 다양한 미션 등의 기술적인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연비와 디자인까지 만족하니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아우디의 TDI 엔진을 경험해 보니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퍼포먼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강하고, 고급스러운 아우디를 표현하기로 했죠. 다양한 오케스트라를 편성해 고급스러움은 잃지 않고자 했고, TDI 엔진을 표현하기 위해 강력한 드럼 사운드를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조용한 하프나 피아노로 곡의 모티브를 잡았습니다.

The  
Heartbeat  
of Audi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타사 디젤엔진 대비 정숙함을 따라갈 수 없는 아우디의 TDI 엔진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고요하면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담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 고급스러운 표현에도 신경 썼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딱히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다만 가볍지 않으면서 웅장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QUESTION** 공모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ANSWER**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물체나 사물에 음악을 적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음악의 정의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표현법 및 내가 가진 정서나 음악적 지식에 대해 정리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으신지?

**ANSWER** 이번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를 통해, 음악 디자이너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음악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일이 이렇게 매력적인 일인지 모르고 지내왔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음악 작곡가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 KIM DEOKKI

김덕기(29) 마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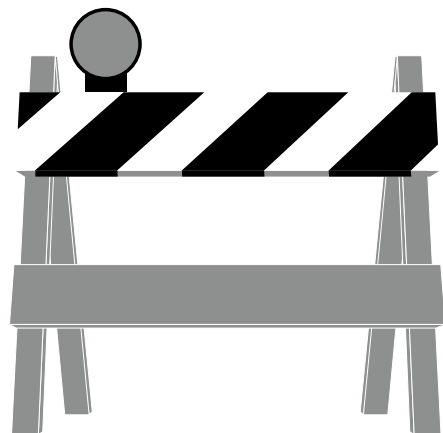
# KIM JAEHYEON

김재현(26) 프리랜서

김덕기, 김재현의 4seasons

##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사계절을 노래하다

아우디의 디자인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잔잔히 변화한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볼수록 그 가치를 느끼게 된다. '4seasons'는 아우디의 디자인처럼 잔잔하지만 깊이 있는 사계를 노래한다. 눈 쌓인 도로를 달리는 아우디의 흐트러짐 없는 겨울 드라이빙, 수확을 통한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차분히 익히는 가을,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풀의 향기를 느끼며 도로를 달리는 여름,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의 계절 봄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2년 연속 파이널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덕기, 김재현은 영속성과 결속을 상징하는 아우디 엠블럼 네 개의 고리를 사계절이라는 컨셉트로 이끌어냈다. 전체적으로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리듬과 멜로디라인을 사용하여 화려하거나 요란하진 않지만 깊이 있는 음색을 구현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김재현) 작년도 챌린지에 참여해,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됐었습니다. 그 기회가 제 일에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저에게 다소 과분하다는 생각에 표현력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표현력에 대한 확신을 얻음과 동시에 작년의 기회가 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제 친형인 김덕기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아우디의 브랜드 철학과 디자인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경험과 환경을 반영하여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와 요구를 담아내어 디자인에 진정성과 영속성을 부여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아우디의 디자인과 철학이 아닐까요?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4seasons'는 아우디 엠블럼인 네 개의 고리를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컨셉트를 잡고 곡의 구성 요소인 인트로-브릿지-코러스-아웃트로 각각을 겨울-가을-여름-봄으로 테마를 정해 계절의 역방향, 즉 겨울에서 봄을 향해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의 곡입니다.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인트로인 겨울 테마에서는 아우디의 흐트러짐 없는 안정감을 보여주는 파트로를 표현하였고 가을 테마에서는 노골적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하고 진보하는 아우디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테마에서는 한여름 밤 머리 위로 펼쳐진 은하수를 느끼며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의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의 조화를 통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마지막 봄 테마에서는 무조건적인 화려함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이고 영속적이면서 새롭고 혁신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아우디를 표현했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아우디 디자인의 영속성과 엠블럼의 결속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 매우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EDM식 다이내믹 사운드'를 따르지 않고, 각 소리들이 서로의 음역대에 조금씩 간섭하여 하나를 이뤄내는 믹싱 및 마스터링을 했던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사운드에도 아우디의 디자인 철학을 담고자 했던 기존의 스탠더드한 방법에서 완전 벗어난, 말도 안 되는 시도였기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ANSWER** (김재현)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롭고 재미있는 창작물을 생산해내고 광고, 영화, 게임 등과 같은 매체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끝없이 탐구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운드 디자이너이자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요. (김덕기) 현재 자동차 브랜드와 관련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마케터로 활동하며 시야와 안목을 넓히고 싶습니다. 개인의 확고한 시그니처가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제가 가진 방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마케터가 되고자 합니다.

# Enhanced the Audi Experience Product Design

with Map





# Judges & Mentor Product Design

## Judges

### LEE DONTAE

이돈태 탠저린 공동대표

### LEE HYESUN

이혜선 이화여대 제품디자인과 교수

### JUNG HYUN

정현 플레이랩 대표

## Mentor

### SUNG JUNGGI



성정기 2005년 세계적 산업 디자인 회사 IDEO에 첫 한국인 디자이너로 입사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루나(Lunar) 디자인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데이라이트(Daylight) 디자인 디렉터다.

## Judge's Review

“ 혜택 받지 못하던 반려동물을 위한 케이지 디자인이라는 콘셉트는 새로우면서도 아우디가 가지는 배려에 매우 적합합니다. ”

### // Finalists 1차 심사평

심용우, 송영섭의 'Audi more than Family'가 보여준, 혜택 받지 못하던 반려동물을 위한 케이지 디자인이라는 콘셉트는 새로우면서도 아우디가 가지는 배려에 매우 적합합니다.

정유나, 정혜수의 'Electronic Moto'는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청소기로 해석한 발상이 재미있습니다. 아우디의 역동성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조형적 표현에 집중해, 기능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조형이 돋보이는 이재혁, 정필권의 'Embrace'는 적용 가능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 없는 조형의 제안, 자동차 실내 공간에서 사용하지 않을 시 보관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디자인 제안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이호정, 이재웅의 'Intu Check'는 자동차 점검에 지식이 많지 않은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예방과 안전'의 과정을 아우디 경험에 포함시킨 것이 흥미롭습니다. 내부의 구성과 외장의 형태가 좀 더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련된 정리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 // Winner 최종 심사평

이재혁, 정필권의 'Embrace'는 디자인 방향에 대한 완성도와 초기 추구하고자 했던 디자인에 대한 일관성 있는 표현이 우수합니다. 잠간의 휴식을 아우디의 경험 일부로 연결시킨 개념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수면안대에서 빛과 소리를 나오게 한다거나 스마트폰 앱과의 연동을 통한 인터페이스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이런 'Embrace'의 다양한 기능들은 다른 작품들보다 아우디의 브랜드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품의 디테일이나 밀도감 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WINNER

# LEE JAEHYUK

이재혁(27)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JUNG PILKWON

정필권(25) 상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재혁, 정필권의 Embrace

## 휴식의 시작에서 끝까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백화점 주차장의 차 안에서 아내를 기다리며 잠을 청하는 남편. 업무에 지쳐 차에서 새우잠을 자는 회사원에게 일상의 편안한 휴식 타임을 제공한다. 'Embrace'는 아우디의 섬세한 감성을 휴식의 영역까지 확장한 수면안대다.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은 수공예 기반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천연 가죽 패턴으로 이루어졌고, 주문제작 방식으로 유저의 얼굴을 스캔하여 개개인의 얼굴에 맞는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 또한 아우디의 빛과 소리에 대한 디테일은 'Embrace'의 Light Alarm 기능과 만나 차 안에서의 휴식의 시작에서 끝까지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다른 브랜드가 대신할 수 없는 아우디만의 특별함을 제공한다.



QUESTION 팀 소개를 한다면?

ANSWER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평소에도 코드가 잘 맞아서 학기 중에는 같이 공모전에 참가하기도 하고 방학 중에는 함께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저희가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인지라 둘 다 아우디 브랜드의 디자인적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에서 공모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도전하자고 뜻을 모았죠. 또 아우디는 독일의 대표 브랜드잖아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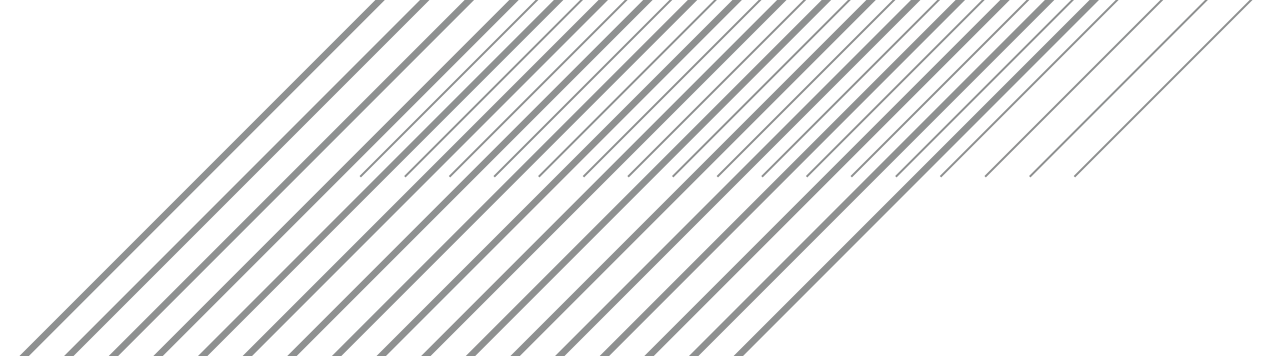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평소에는 자동차의 외형 같은 멋스러운 부분만 봤었어요. 그런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감성을 전달하고, 항상 도전적인 기술을 연구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우디의 가치가 더욱 와 닿았던 것 같아요.

QUESTION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ANSWER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차량 내부의 액세서리를 고민했는데 작년 수상작들이나 올해 몇몇 제품들을 보면 차량에 국한된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했어요.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차 안에서 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수면안대를 착안했죠.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아우디를 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버지들을 보면 엄마가 백화점 갔을 때 차 안에서 기다리시면서 주무시고 그러시잖아요. 아근하고 잠깐 눈 붙이실 때도 그렇고요. 운전자를 배려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휴게소나 비행기, 기차에서도 쓰이고, 일상에 녹아 드는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QUESTION** 작품의 장단점을 꼽자면?

**ANSWER** 수면안대가 평상시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템이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안대에 빛이나 소리가 나오는 기능들을 추가하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아우디 제품이면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사용하지 않을까요?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멘토링 이후 부족했던 데이터를 보충하고 수면안대라는 아이템이 운전자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이유까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최고의 착용감을 줄 것인지, 어떻게 아우디의 철학을 전달할 것인지 등 많은 생각과 연구를 거쳐서 멘토링 받기 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고, 프로토타입 제작에 있어서도 멘토님의 조언으로 조금 더 수월하게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사실 제한된 시간과 비용으로 초기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상상하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아이템이라 일반 제품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재라든지 형태, 착용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컨트롤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 SHIM YONGWOO

심용우(26) 한성대학교 제품디자인과

# SONG YOUNGSUB

송영섭(24) 한성대학교 제품디자인과



심용우  
SHIM YONGWOO

심용우, 송영섭의 Audi more than Family

##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우디의 가치를 담다

반려동물 보유가구 1천만 시대, 사랑스런 반려견과의 동행을 꿈꾸는 사람들. 그러나 차 안을 종횡무진 휘젓는 반려견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심용우, 송영섭은 아우디 오너가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의 '특권'과 아우디 차량이 가진 '이동'의 개념을 케이지에 담았다. 차량내 반려동물의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우디의 가치를 담은, 반려견을 위한 아우디의 명품 케이지 'Audi more than Family'. 아우디의 그릴에서 모티브를 얻어 반려동물 케이지의 도어를 만들고, 공기의 흐름이라는 기능적 요소도 적용해 단순히 형태만이 아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모티브를 가져왔다. 컬러나 재질에서도 차량 내부의 가족 느낌과 그릴의 명쾌함을 더해 고품격 타깃에 맞춰 디자인했다.



**QUESTION** 팀 소개를 한다면?

**ANSWER** 앉아서 생각하는 천재보단 발벗고 나서는 바보가 되자는 생각으로 항상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경험하는 노력파 학생 둘로 이뤄진 팀입니다. 한성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선후배 사이지만 친형제 같이 끈끈합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작년 1회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올해는 꼭 한번 나도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내년 초 소위로 임관을 앞두고 있는 후배인 영섭이에게 군대 가기 전에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주고자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아우디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정돈된 라인들이 모여 웅장함을 만들어내는 듯하며, 어느 누구 하나 튀려고 하지 않고 요소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모든 형태와 라인들은 제 역할을 다해내며 아우디라는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Audi more than Family'는 아우디가 가족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이제는 가족 구성원의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동장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오너가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움의 '특권'과 아우디 차량이 가진 '이동'의 개념을 담아 디자인하였습니다.



송영섭  
SONG YOUNGSUB



**QUESTION**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ANSWER**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아우디만이 가진 브랜드 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보아도 매력적인 제품으로 남을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차량에서 반려동물은 자신의 공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갔다하거나 바닥에 자리를 정해주어도 올라오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운전자를 방해해 자칫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 반려동물만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드 케이스를 통해서 그들의 공간을 제공하고, 제품에 아우디 오너의 이미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작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쓰이는 재질, 메커니즘도 고려해야 하며 어떠한 부품을 써야 하는지 등의 모든 과정이 처음이고 낯설어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몇 시간씩 걸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QUESTION** 공모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ANSWER** 경험해 보지 않고는 어떠한 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해결해나가는 모든 것이 성장하는 과정의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ANSWER**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담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람들이 직접 보고 사용하면서 느끼는 서로 다른 감정들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실천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 JUNG UNA

정유나(23)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

# JUNG HEASOO

정혜수(23)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정유나, 정혜수의 Electronic Moto

##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아우디 엔진의 안전성

가속력이 뛰어나면서 조용한 아우디 엔진이 도로 위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Electronic Moto'는 월등한 안정성을 가진 아우디의 하이브리드 알루미늄 바디와 아우디 콰트로 시스템을 결합시킨 로봇청소기다. 중앙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재학 중인 정유나, 정혜수는 제품 디자인에 처음으로 도전하며 가볍고 소음이 적은 아우디 엔진의 안전성을 가정으로 끌고 들어와 디자인을 표현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저희는 학교 광고수업에서 같은 팀입니다. 공모전 출전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업인데,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에서 저희 것이 뽑혔어요. 저희 전공인 시각디자인이 아닌 산업디자인 쪽의 아이디어가 발탁되었지만, 교수님의 권유로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말 그대로 '챌린지'죠.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우선 역사가 깊은 브랜드라는 점, 그리고 심플한 동시에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벼운 차체와 적은 소음을 추구한다는 점도 인상깊었어요. 이런 요소들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QUESTION**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ANSWER** 가전제품들 중에는 시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저희는 가벼운 차체와 적은 소음을 추구하는 아우디의 특징을 가전제품에 접목하고자 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아우디의 엔진 덮개를 봤는데, 그 모습이 청소기랑 닮았다고 생각했죠. 그 덮개로 인하여 차안에서 느끼는 소음이 덜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착안했어요.



정유나  
JUNG UNA



정혜수  
JUNG HEASOO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작품을 구현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시각디자인 전공이라 기술적인 부분엔 약했거든요. 제작은 한번도 안 해봤는데, 기간도 짧아서 상당히 부담됐어요.

**QUESTION** 공모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ANSWER** 멘토링 과정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나 아이디어 부분도 발전시켜 주셨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 제품 관련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품으로 구현시킬 것인지부터 실제 청소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전공뿐만이 아닌 다양한 디자인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어요.



# LEE JAEWOONG

이재웅(27) 상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LEE HOJEONG

이호정(25) 상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재웅, 이호정의 Intu Check

## 아우디 자동차를 이해하고 교감하다

당신의 차를 사랑하는가? 하지만 단순히 드라이빙만을 즐기고 있진 않은가? 자동차의 기술은 발전하지만 자동차 이용자들의 이해도는 낮아지는 추세다. 차를 꼼꼼히 아끼지만 스스로 점검 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Intu Check'. 이재웅, 이호정은 'Intu Check'을 통해 직접 차를 살펴봄과 점검하고 그 안에서 차량에 대한 이해와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 점검 키트를 디자인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 구성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돕는 차량 소모품 교체주기 점검 키트다. 차에 애정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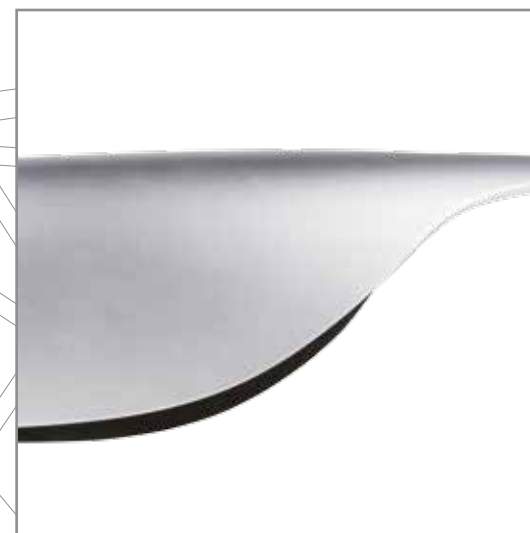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소재에 대한 선택이 다른 공모전에 비해 자유로워서 지원했습니다. 다른 공모전은 조명이면 조명,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아우디 공모전은 제품디자인 카테고리 안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차량 점검 키트입니다. 차별화된 점은 단순히 점검만을 위한 키트가 아닌 자기 차량의 점검과 이해라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자기 차량에 대한 애착과 관심, 아우디의 '오너'로서 가질 수 있는 드라이빙 이상의 아우디만의 '새로운 경험'을 주고자 했습니다. 각각의 파트들은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점검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객을 생각하는 디테일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아우디 차량의 일체형 알루미늄 보디와 에어로 다이내믹 디자인 개념에 영감을 받아 나타냈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초기에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는 '아, 이거다!' 했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처럼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했어요. 또 저희가 차량 내부에 지식이 풍부한 게 아니어서 공부하면서 제작하는 부분이 힘들었습니다.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워킹 목업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구동에 용이하게끔 구조와 형태를 다듬었고 우리가 의도한 큰 콘셉트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외관 디자인의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작품에 대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와 내용면에 있어 멘토링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받아 보완했습니다.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멘토링 후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작품을 구현하는 데 있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목업 제작할 때는 실제 양산제품처럼 기술적으로 구동시키는 데엔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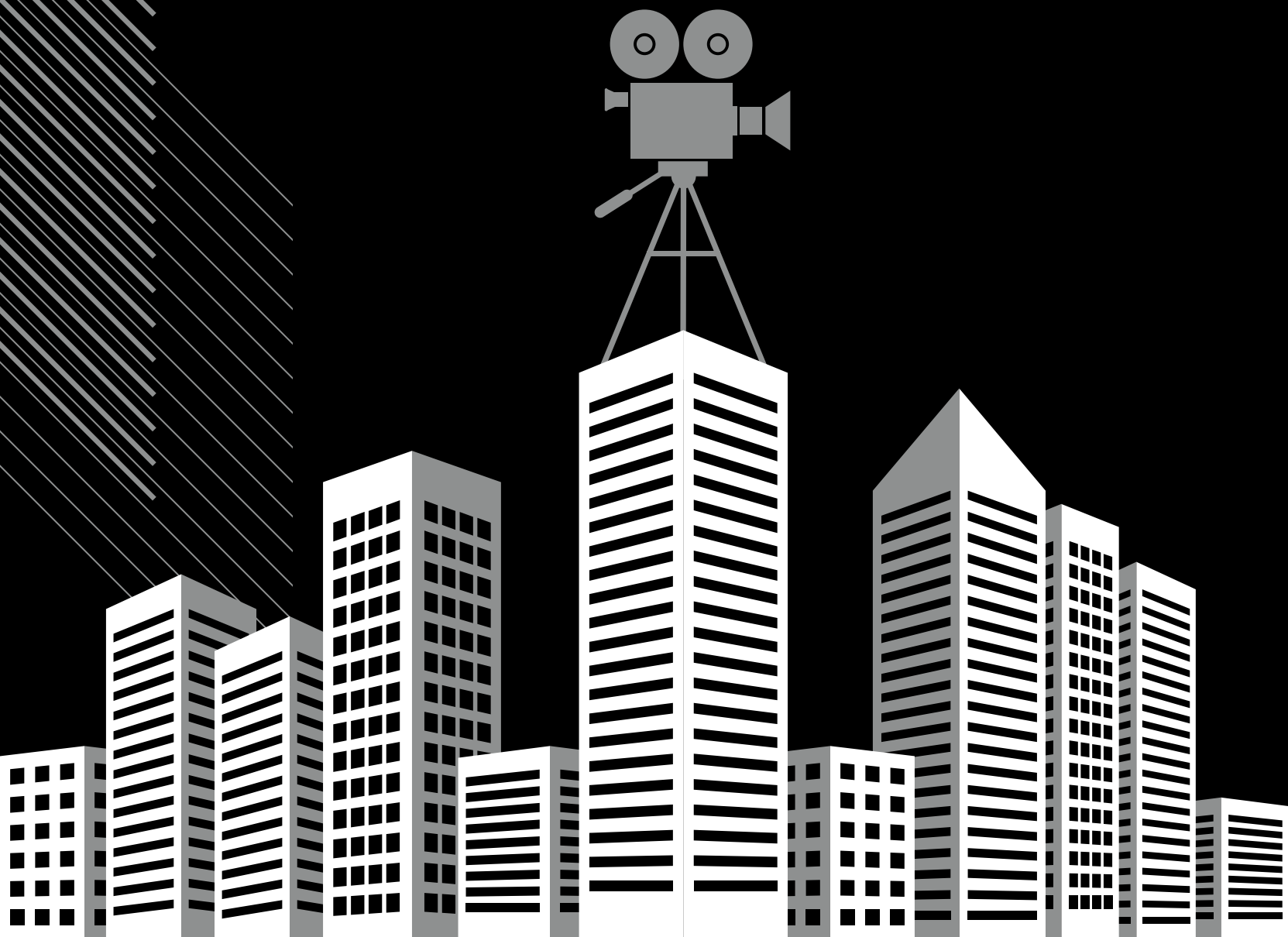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ANSWER**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여러 엔지니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 The Movement of Progress Motion Graphic Design

with Cityscape





# Judges & Mentor Motion Graphic Design

## Judges

### KIM HONGTAK

김홍탁 제일기획 마스터

### NAMGUNG YOO

남궁유 JTBC 디자인 센터장

### HA JUNSOO

하준수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 Mentor

### PARK SEOWON



박서원 빅앤티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세계 유명 광고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았다. 2011년 저서  
<생각하는 미친놈>을 발간. 광고인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 Judge's Review

“ 48편의 다양한 출품작.  
전년도에 비해 스타일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

### // Finalists 1차 심사평

48편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 점이 고무적이네요.  
전년도에 비해 스타일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다만,  
달리기만 하는 자동차가 아닌 개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보여주는 자동차의 이미지를  
담은 시나리오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멘토링을 통해서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정부건의 'Wherever be the Middle of the World'는  
아우디가 일상의 중심에 있다는 컨셉트를 미니멀한  
비주얼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좀 더 과감한 연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다감, 이예림의 'White Road'의 독특한 비주얼적  
표현은 새로운 감성을 자극하네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을 좀 더 견어내면, 새로운 비주얼과 음악의 느낌을  
더욱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은퇴한 노년을 통해 아우디의 역동성을 보여 주고자 한  
강석민의 'Forever Young'의 의도는 참신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노인만을 위한 아우디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의도를 확고히 발전시키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사물에도 관심이 있다는 고지원, 이보경의  
'아우디의 관상'은 재미있는 시도가 돋보입니다. 여기에  
아우디 브랜드의 고급스러움을 더해 발전시켜보기 바랍니다.

“ 스토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묘사하는 구성이  
좋았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난 것처럼  
여운이 남습니다. ”

### // Winner 최종 심사평

강석민의 'Forever Young'은 전문 디자이너가 만들었다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전문성이  
뛰어났습니다. 아우디 브랜드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는 아이디어가 공모전 취지에 잘  
부합합니다. 처음의 구상 단계부터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고, 주인공의 감정선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섬세한 촬영과 극적인 영상 효과가 어우러져 전통적인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상미학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퀀스(Sequence), 즉 스토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묘사하는 구성도 좋았습니다. 꼭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난 것과 같은 여운이 남습니다.

WI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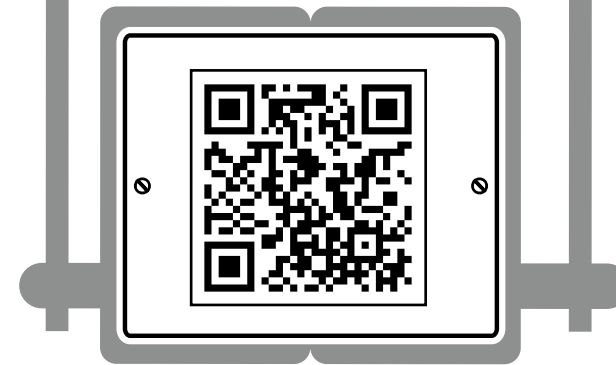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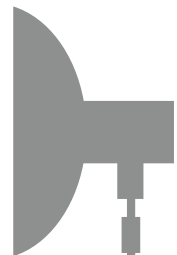
# KANG SUKMIN

강석민(26)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

## 강석민의 Forever Young

### 아우디를 통해 다시 젊음을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담다

과거 무용수였던 노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귀가하는 길에 춤을 추고 있는 젊은 남녀 무용수 한 쌍을 보게 된다. 아우디를 타고 가던 도중 차에 날아와 앉는 새 한 마리. 새의 힘차고 우아한 날갯짓, 그리고 젊은 무용수들의 춤사위가 오버랩되면서 노교수는 젊은 시절 자신을 떠올린다. 노교수의 복잡한 마음을 대신해 아우디는 탁 트인 경관의 도로를 시원하게 달린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만난 아내에게 정중히 춤을 권하는 노교수. 그는 아우디와 함께 언제까지나 무용수이고 영원히 젊다. 국민대학교 영상디자인학과에 재학 중인 강석민은 인간이 자동차를 통해 자신의 젊음을 다시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표현했다. 직접 촬영, 편집하여 인간과 자동차,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과정을 한 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로 아우디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올해 졸업반이라서 졸업하기 전에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교수님께서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전시장에 데려가 주셨어요. 대학생들 위주의 작품으로 공모를 하는데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감명 받아서 올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이 작업은 언뜻 보면 잊혀진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열정의 상징 아우디를 연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육체적인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나이와 열정인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아우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유럽 명차,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다이내믹, 쿼트로 등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 외에 아우디가 어떤 가치로 보여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나이 드신 분들도 아우디를 통해 자신만의 젊은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1차 작업에는 군더더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멘토링을 받고 편집과 구성, 디테일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었고 'Life goes on'이라는 꽤 멋진 캐치프레이즈까지 마지막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멘토인 박서원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QUESTION** 작품의 장단점을 꼽자면?

**ANSWER** 직접 촬영과 편집을 했기 때문에 영상이 아름답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자동차 브랜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건 촬영이 기반이 되어 작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촬영 영상 안에 모션 그래픽 요소까지 버무려야 하니까, 주어진 시간에 비해 작업 시간이 부족했어요.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Forever Young'은 프리 프로덕션이 완성되어 들어간 작업입니다. 그 덕분에 1차 기한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작업물을 제출했지만 최종 작품 제출 기한에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ANSWER** 지금도 그래픽 디자인도 하고, 영상 촬영도 하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 작품의 기준은 항상 주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거든요. 아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가 모두 이해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해하실 수 있는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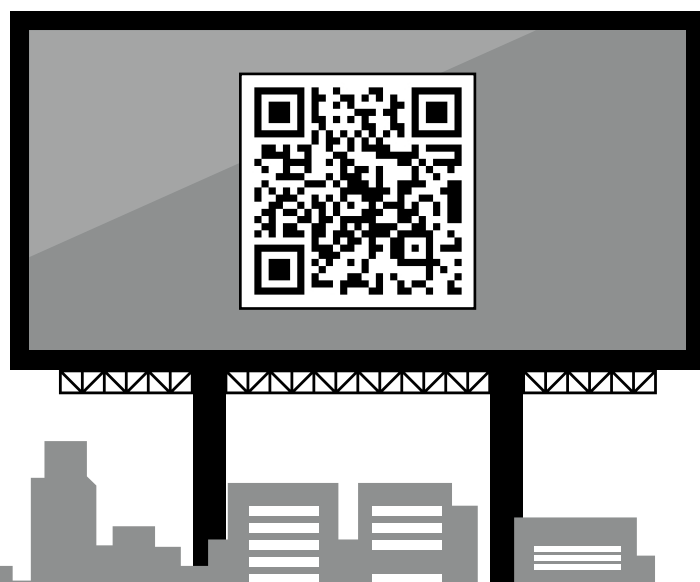
# JUNG BOOGUN

정부건(26) 프리랜서

정부건의 Wherever be the Middle of the World

##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아우디를 담다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한 변치 않는 고집으로, 이제 아우디는 자동차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섰다. 정부건의 'Wherever be the Middle of the World'는 더 나은 디자인과 기술의 진보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해 아우디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메시지를 영상에 담았다. 좋은 디자인은 누군가에게 기준점이 되고 레퍼런스가 되듯 아우디 역시 진보를 통해 좋은 디자인으로 기준이 되었음을 나타냈다.



**QUESTION** 자기 소개를 한다면?

**ANSWER** 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그래픽 디자이너 정부건이라고 합니다. 평소 영상 디자인에 흥미가 많아 새로운 영상 기법을 찾아보거나 그 밖에 모든 그래픽적인 요소에 재미를 느끼고 찾아보고 실험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평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는데 우연한 계기로 인터넷에서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에 모션그래픽 부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으로 아우디 브랜드를 표현해 보는 것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이번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에 참가했습니다.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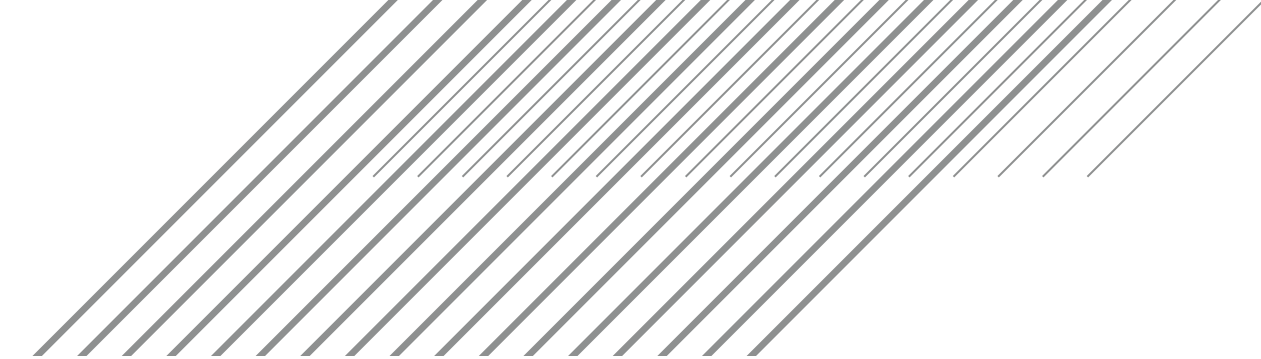
**ANSWER** 아우디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우디의 진보정신과 도전정신은 사람들에게 역동적인 느낌과 동시에 묵직한 믿음을 전해준다고 봅니다. 진보적이고 뚜렷한 브랜드 철학이 사람들이 느끼는 아우디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저는 아우디의 R 시리즈와 A 시리즈의 차체 디자인을 보면서 상당히 묵직하고 든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묵직하고 든든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메시지를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정중앙 같은 자리에 아우디를 위치시킴으로써 이를 표현했죠.

**QUESTION**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ANSWER** 우선 아우디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을 읽어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우디 브랜드의 철학과 심볼을 보면서 굉장히 단단하며 묵직하고 믿음직하다고 느껴요. 이러한 아우디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들 사이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 영상에서 이를 표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우선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인 아우디라는 '브랜드'가 세상의 중심에 서있다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단순함과 역동성을 중요시하는 아우디 디자인 철학에서 모티프를 얻어 단순한 표현기법으로 최대한 역동적인 영상으로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다시 한번 작품을 고민해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 음악과 더불어 좀더 과감한 연출이 있으면 좋겠다는 조언이 있었죠. 다소 심플하고 반복적인 이미지의 전환 때문에 영상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상이 지루하지 않게끔 기존의 주제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래픽 요소를 추가하고, 음악에 따른 빛과 색상의 변화 효과와 분할 이미지 효과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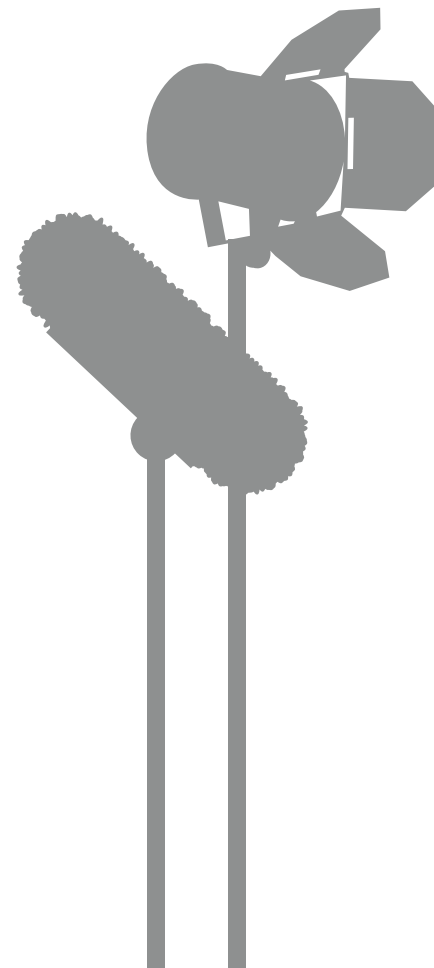
**ANSWER** 영상을 통해서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우디 브랜드를 보면서 느낀 감정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에게 과연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죠.

**QUESTION** 공모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점은?

**ANSWER** 이번 공모전 작품을 제작하면서 다시금 저의 표현능력의 부족함과 한계점을 느낀 것 같아요. 제 표현력과 아이디어가 더 좋았다면 사람들에게 더욱 명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출품이 가능한 공모전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브랜드의 철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ANSWER**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래픽 분야에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감흥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 LEE DAGAM

이다감(25)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LEE YERIM

이예림(23)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다감, 이예림의 White Road

##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간 아우디 진보의 역사를 담아내다

아우디 기술의 진화는 단순히 자동차의 역사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간다. 이다감, 이예림의 'White Road'는 눈이 내리는 하얗고 드넓은 황야로 시작된다. 나무들 사이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등장하는 전자 매체들은 처음에는 소리만 나오는 라디오, 흑백 TV, 그리고 컬러 TV로 점점 발전한다. 이는 그 아우디가 이뤄낸 기술의 진보를 보여준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달려 나가는 아우디가 보이고, 그 뒤로 아우디가 만들어 놓은 길을 뒤따르는 다른 자동차들이 나온다. 앞선 기술력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를 변화시켜온 아우디가 걸어온 길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저희는 현재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학번이 달라서 처음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같은 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한 팀이 되어 과제를 하다가 교수님께서 공모전을 권하셔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아우디의 기술 진보는 단순히 자동차의 역사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갑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전자 매체들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온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자 매체들을 통해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아우디 기술의 진보를 투영시켜 표현했습니다.

**QUESTION** 작품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ANSWER** 아우디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려 노력했습니다. 누구든 아무나 가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것은 항상 외롭고 두렵기 마련이죠.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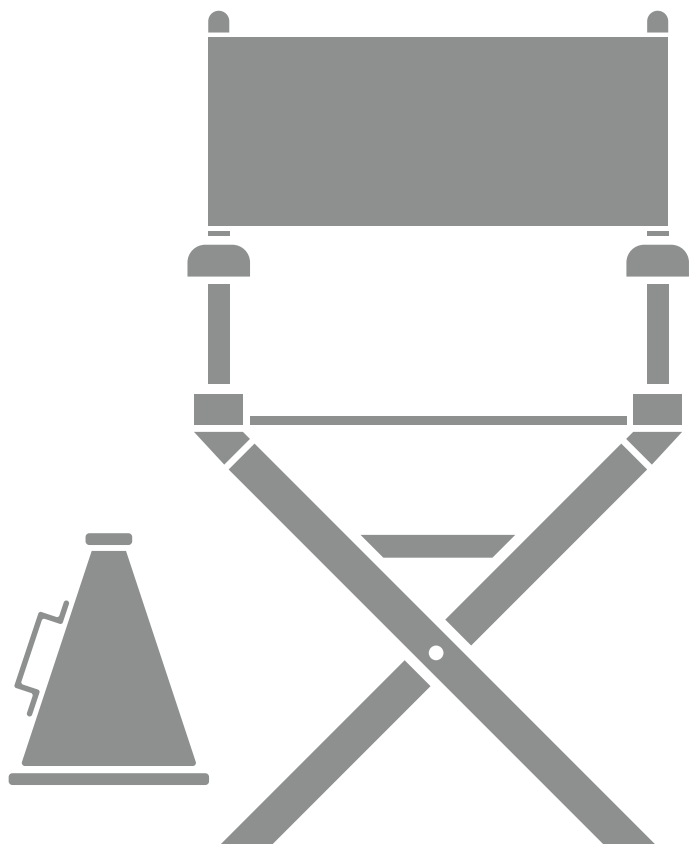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박서원 멘토님께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작품의 장점과 단점들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장점은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조안을 해주셨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하나 둘 모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죠.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처음 기획했던 것만큼은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작품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완성도였는데 멘토링을 통하여 정말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영상을 하기에 앞서 기술적인 부분을 앞으로 더 보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영상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LEE BOKYEONG

이보경(24)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 KO JIWON

고지원(24)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이보경, 고지원의 아우디의 관상

## 완벽한 비율을 갖춘 아우디의 관상을 한국적 요소로 재해석하다

예로부터 사람의 관상엔 삼라만상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그 사람의 인생과 성품, 그리고 운명까지. 그렇다면 아우디의 관상은 어떨까? 귀 뒤의 수골이 높은 것이 사고 없이 장수할 상, 눈매가 또렷하고 빛이 나니 신뢰를 얻을 상, 입은 바다, 인중은 강이니 만사 실패를 주저하지 않는 도전적인 상이며 두툼하고 동그란 코는 뜻한 바를 다 이루는 진취적인 상으로, 완벽한 비율을 갖춘 아우디의 관상이다. 이보경, 고지원은 아우디의 관상을 분석하며 아우디의 완벽한 비율과 디자인을 한국적인 요소로 재해석했다.



이보경  
LEE BOKYEONG

**QUESTION** 팀 소개를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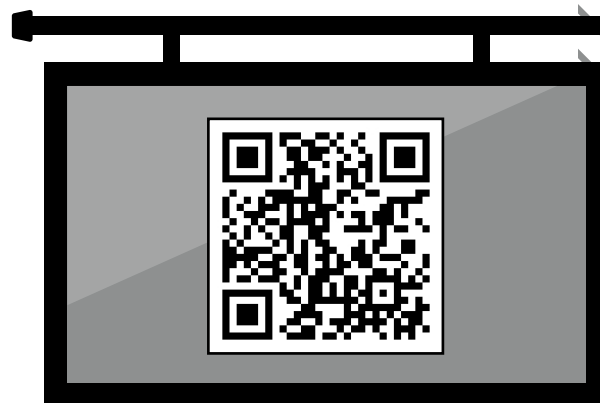
**ANSWER** 다른 학교,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광고라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한 팀을 이뤄 약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아우디아말로 디자이너들이 작업하고 싶은 브랜드 1순위일 것입니다. 이런 아우디에서 디자인 챌린지를 개최한다는데 참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아우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참가할 이유와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아우디의 브랜드 철학은 굉장히 젊고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자동차만이 가지는 감수성에 아주 딱 맞는 브랜드 철학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자동차 브랜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QUESTION** 작품의 장단점을 꼽자면?

**ANSWER** 자동차 브랜드는 대부분 현대적인 느낌을 많이 추구하는데, 저희 영상은 역발상적으로 동양 고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장점이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역발상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우디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양인에게도 그렇지만 서양인에게도 더욱이 관상이라는 소재가 재미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사람들 머릿속에 더 잘 각인될 것이며, 브랜드를 좋은 이미지로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작품을 발전시키면서 진행하다 보니 하면 할수록 작품을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멋진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디테일 하나라도 더 완성도 높게 진행하고자 애썼죠. 하지만 이런 모션 그래픽 분야에 처음 도전하다 보니,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아서 '다시, 한 번만 더'를 수없이 외치며 작업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지만, 테크닉이 더 좋았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있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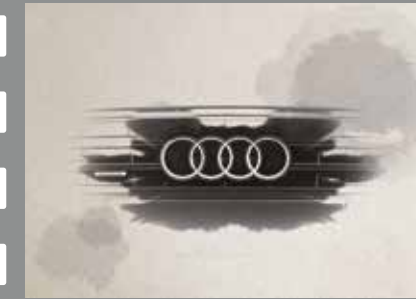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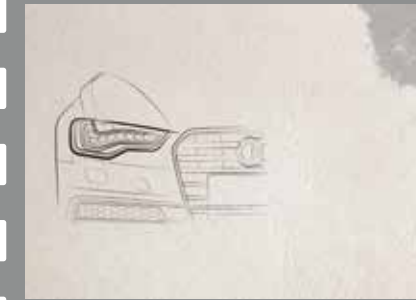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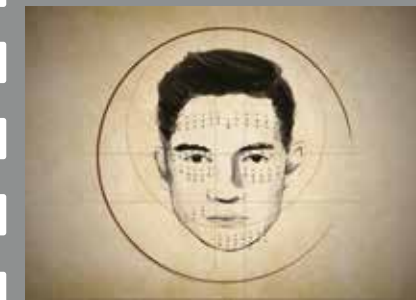
**ANSWER** 체력적인 면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가 영상 디자인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작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을 새기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영상 실력이 늘어서 앞으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봐서 더욱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저희는 1차 작품에서 아우디를 보여줄 때 관상이라는 전통적 소재에 맞추고자 아우디 자동차도 저희가 직접 그린 전통적 느낌의 그림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 시 1차 작품이 나레이션, 콘텐츠, 구성 등은 완성도가 높지만 아우디의 세련미를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최종 작품에서는 아우디의 세련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디자인인 아우디 실제 사진을 이용하고, 그래픽 요소를 더 세련되고 깔끔하게 다듬어 작품을 보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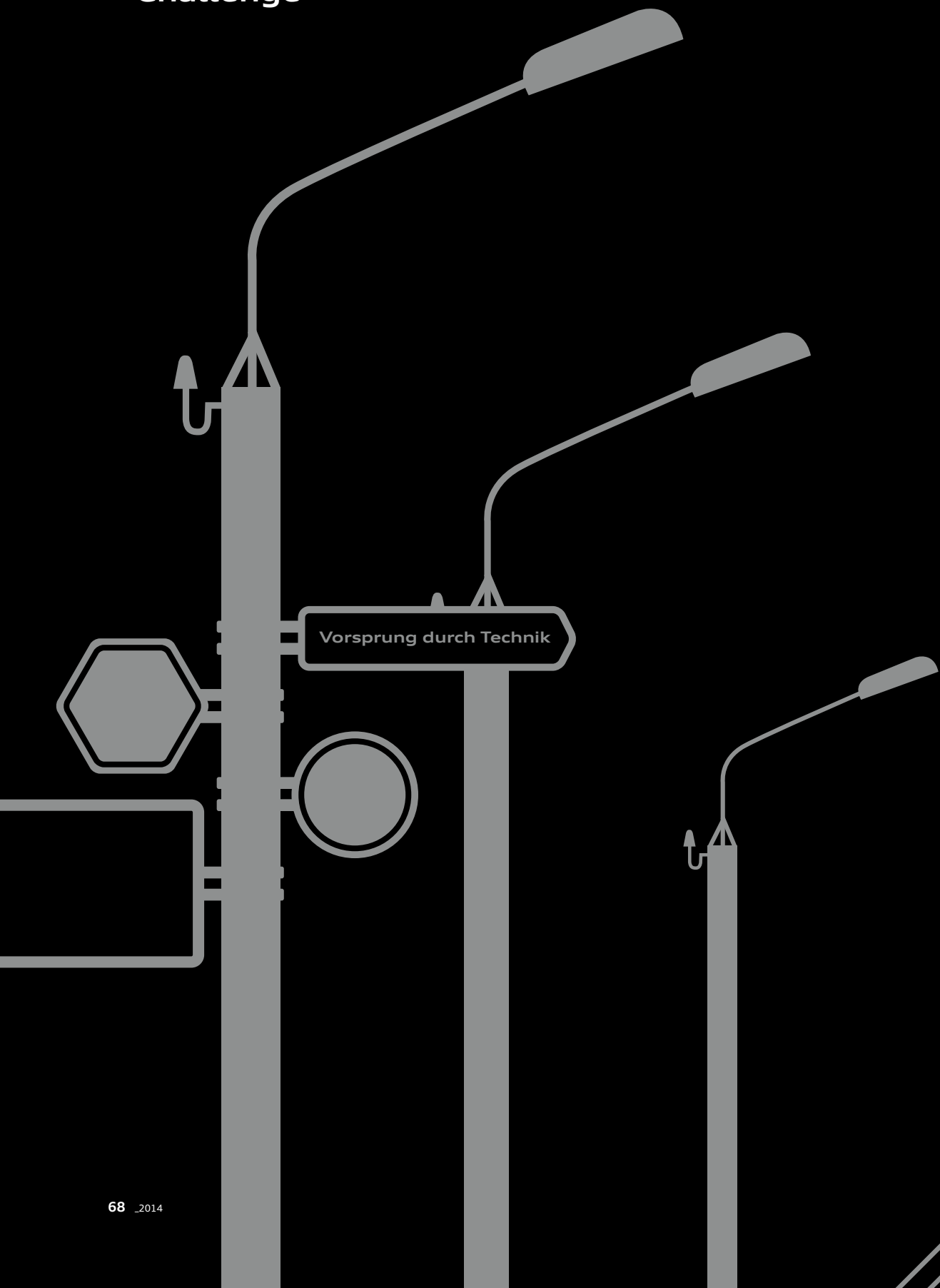


고자원  
KO JIWON



# A Beauty Beyond the Car Furniture Design

with Street Lamp



Vorsprung durch Technik



# Judges & Mentor Furniture Design

## Judges

### KIM SANGHYUN

김상현 시디즈 대표

### KIM MYUNGHAN

김명한 aA Design Museum 관장

### JANG MINSEOUNG

장민승 가구 디자이너

## Mentor

### HA JIHOON



하지훈 가구 디자이너이자 계원예술대 가구디자인과 교수.  
홍익대 목조형 가구학과, 덴마크 디자인 스쿨 가구 디자인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다.

## Judge's Review

“ 사라져버린 아날로그 시계를 디지털과 기계적 요소로 재현한다는 점이 신선합니다. ”

### // Finalists 1차 심사평

헤드램프에 LED를 최초로 적용한 조충희, 이보경의 'Audi de Lux'는 아우디 기술의 역사를 잘 표현했습니다. 실현이 가능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현철의 '라운지 스톨(Lounge Stool)'은 부드러운 곡선과 유머러스한 형태에서 오는 유머와 재치가 돋보입니다. 제품으로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정필권, 이재혁의 'Time Piece'는 정밀과 정확으로 대변되는 시계와 아우디의 '완성도'라는 가치를 잘 부합시켰습니다. 사라져버린 아날로그 시계를 디지털과 기계적 요소로 재현한다는 점도 신선합니다. 홍욱의 'Inframince A+1'은 양산이 가능할지 우려됩니다. 실험적 컨셉트라는 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형적으로도 아름답지만 아우디가 자동차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반영한 점은 더욱 훌륭합니다.

“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계라는 소재를 명료하고 심플하게 풀어나간 점이 좋았습니다. ”

### // Winner 최종 심사평

정필권, 이재혁팀의 'Time Piece'는 아날로그적인 과종 시계를 아우디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과 결합한 것이 좋았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과종시계의 시침과 분침의 표시를 LED 불빛으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계라는 소재를 가장 명료하고 심플하게 풀어나간 점이 특히 좋았던 작품입니다. 다만 브랜드에 대한 해석이 보편적이기보다 개인적인 의미 부여에 머문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WINNER

# JUNG PILKWON

정필권(25) 상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 LEE JAEHYUK

이재혁(27) 한양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정필권, 이재혁의 Time Piece

## 아우디의 기술을 통한 진보의 가치를 시계에 담다

'Time Piece'는 과거의 기계식 과중시계를 모티브로 아우디의 섬세한 디테일과 기술적 철학이 반영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시계다. 전체적인 형상은 아우디의 복잡하지 않고 절제된 라인으로 구성돼 아우디의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며, 시계 전면부에서는 금속의 스피ن 헤어라인을 적용하여 진중하면서도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위에 시간의 빛을 새어 나오게 함으로써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시계의 내부는 아우디의 정교한 기술로 제작된 무브먼트가 내장돼 기술을 통한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는 아우디의 내면적 가치를 담았다. 'Time Piece'는 단순한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을 집 안에 담아 둔 하나의 'Masterpiece'가 될 것이다.



이재혁  
LEE JAEHYUK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추억이 담긴 과중시계를 모티브로 해서 아우디의 섬세한 디테일과 기술적 철학을 가미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계입니다.

**QUESTION**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ANSWER** 할아버지댁의 과중시계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중시계의 이미지는 사용자와 함께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집안의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번 공모전을 참가하게 됐을 때 아우디의 디자인이 갖고 있는 클래식하고 진중한 면과 과중시계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사용하는 사람인 집 주인이나 손님이 과중시계의 분위기에 매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초기에 과중시계를 모티브로 가구 부문에 지원할 때 시계는 가구 부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아이템이 정말 마음에 들고 아우디의 브랜드 가치와 맞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거죠. 과중시계를 오브제적인 느낌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가구와 시계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부분 말고는 아무래도 두 개 부문에 출품을 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촉박했지만 나머지 진행들은 대체로 수월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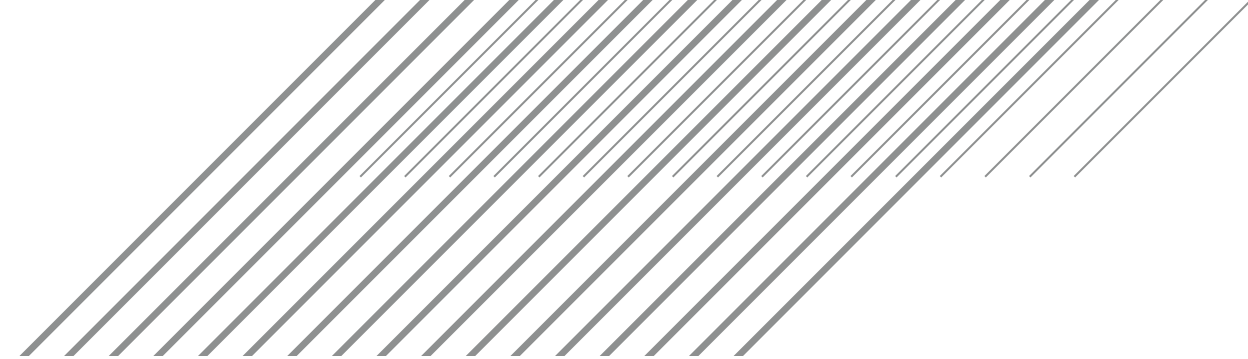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부분은 빛의 표현이었어요. 빛의 조도, 온도부터 금속 위에 빛이 맺히는 부분까지, 미묘한 차이에도 그 느낌이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아우디가 추구하는 빛에 대한 디테일을 반영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방식보다 더욱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형상을 구성하는 것 역시 가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았습니다.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 좀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멘토님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 저희가 처음 생각한 디자인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게 돼 뿌듯했습니다.

정필권  
JUNG PILKWON



# JOE CHUNGHEE

조총희(28)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 LEE BOKYEONG

이보경(23) 세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총희, 이보경의 Audi de Lux

## 일상의 공간에 아우디의 다양한 빛을 밝히다

아우디가 지닌 LED의 역사, 그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 아우디에게 있어서 매트릭스 LED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고 아우디 기술 역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총희, 이보경의 'Audi de Lux'는 매트릭스 LED와 아우디의 빛에 대한 기술 역사를 모티브로, 조명 기능을 결합한 선반(shelf)이다. LED 헤드램프에 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아우디의 빛에 대한 철학을 반영했다. 운전자와 운전자의 환경, 다른 차량까지 고려하는 매트릭스 LED를 모티브로 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빛을 구현하며, 아우디의 느낌을 차량에서부터 다른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일상의 공간에 아우디의 기술이 담긴 빛을 밝힌다. 그리고 그 빛은 가장 아우디답다.



**QUESTION** 팀 소개를 한다면?

**ANSWER** 저희는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지만 같은 디자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같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 스타일이나 디자인 마인드가 서로 잘 맞습니다.

**QUESTION**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ANSWER** 작년 공모전 때도 관심이 있었는데 부득이한 이유로 참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공모전에 대해서 여러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전의 다른 공모전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아이디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품을 구현하고, 전시까지 하니깐요. 물론 상금도 다른 공모전에 비해 굉장히 높고요.

**QUESTION** 작품에 대해 설명한다면?

**ANSWER** 저희는 아우디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조명이라는 게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만큼 사람과 가장 밀접한 가구라고 생각해요. 아우디를 선택한 안목 있는 고객들에게 '아우디스러운', 아우디만의 빛을 구현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QUESTION**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ANSWER** 아우디 모델에서 제시된 매트릭스 LED를 아우디 조명에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매트릭스 LED가 사용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변화한다면, 저희도 상황에 맞는 각도라든지 조도 조절 면에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현실성. 사이즈 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구현할 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콘셉트 방향대로 밀고 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씩 타협을 해야 될지 마음을 결정하는 게 힘들었죠.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멘토링을 통해 1차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제품 생산 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벽에 어떻게 제품을 고정시킬 것인지, 전선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죠. 또 다양한 LED 활용법 중에 어떤 빛을 사용해야 가장 '아우디스러운' 빛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진행했습니다.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작품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시간과 금전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디자인을 해나가는 데 좋은 양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은지?

**ANSWER** 최근 들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데요. 저희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기 때문에 가구 디자인 부문에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이번 공모전에서도 제품 디자인 부문이 있었지만 가구 디자인 부문에 도전을 했던 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였죠. 저희는 앞으로도 학생일 때 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많이 접하고 싶습니다.



# HONG WOOK

홍욱(41) 디자인혼 디자이너

홍욱의 Inframince A+1

## 진보의 반복을 통해 완벽을 추구하는 아우디의 발자취

기술을 통한 진보는 반복에 의한 완전성에 도달하려는 아우디의 정신이다. 반복은 단순한 제작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의 반복을 뜻한다. 진보는 작은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의 반복은 곧 완전성의 도달이다. 발생된 차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존재하는데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정신의 틈이다. 그 정신의 틈이 진보의 의미를 창조한다. 홍욱의 'Inframince A+1'에서 층층이 겹쳐져 있는 막의 하나 하나는 아우디의 발자취이다. 이 발자취의 켜는 완벽을 추구하는 차이의 기록이다. 켜와 켜 사이의 틈은 점점 더 좁아져 상상에서나 가능한 틈의 공간만 존재할 것이다. 그 틈의 공간은 곧 잠재력의 상징이며, 'Inframince A+1'은 아우디 테크놀로지의 Inframince(엡프라망스)이다.



**QUESTION** 자기 소개를 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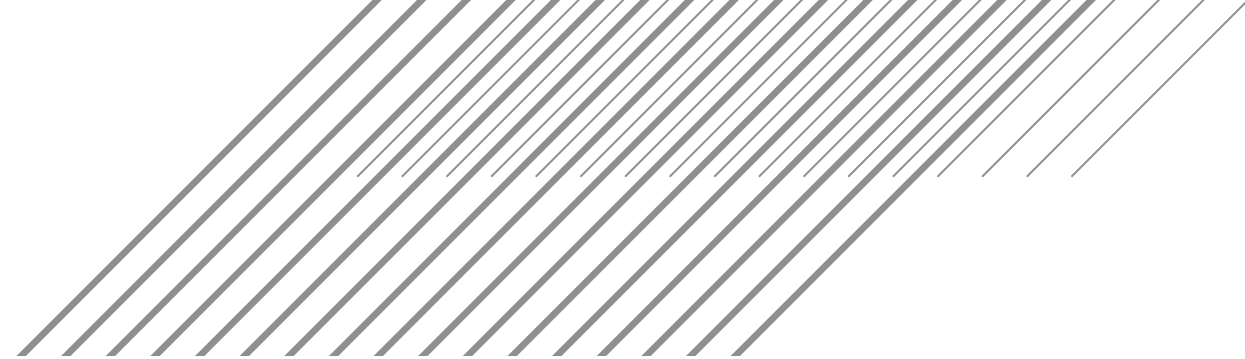
**ANSWER** 저는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사회생활은 제품 디자이너로 시작했습니다. 후에 6년 정도 자동차 디자인 용품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한 경력도 있습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공모전을 접수 마감하기 3일 전해야 알게 됐습니다. 아우디는 늘 관심이 많은 브랜드인지라 갑작스럽지만 열의를 갖고 지원하게 됐죠.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세단부터 스포츠카까지 아우디의 차는 거의 경험해 봤습니다. 탈 때마다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에 외관에서 느껴진 건 '정제'라는 겁니다. 겉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 굉장히 쓰고 싶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죠. 그런데 그 안에는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고요. 겉으로 자랑하지 않거든요. 드라이빙, 디자인, 기술력 모든 걸 통틀어 진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Inframince A+1'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아우디의 역사, 기술, 노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점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철학과 이상의 가치를 작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하기보다는 작품 자체에 아우디의 철학을 담아내려고 했어요. 조형적으로는, 가구는 가구다운 공간(Space)이 아닌 장소(Place)의 개념으로 보다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주어진 2주라는 기간은 **무엇인가** 발전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큼니다.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100퍼센트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직접 만들고 제출했다는 것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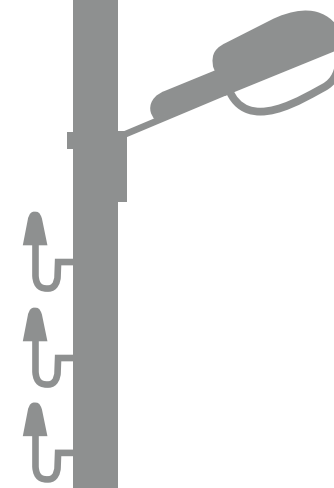
# LEE HYEONCHEOL

이현철(31) SADI(삼성디자인스쿨)

## 이현철의 Loung Stool

### 잠깐 걸터앉아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는 씬터 같은 의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자동차의 이동에 익숙해진 현대인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이현철은 현대인들이 앉아서 지내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계속 앉아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의자가 아니라 잠깐 걸터앉아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하는 씬터 같은 의자 'Loung Stool'. 이 생각의 전환은 자동차를 앞으로 굴러가게 하는 물리적인 오브제로써의 바퀴와 또 다른 바퀴를 연결하는 축을 모티브로 단순한 형태에 금속 재질의 띠를 둘러 아우디 특유의 직선에서 나오는 긴장감을 살렸다.



**QUESTION** 자기 소개를 한다면?

**ANSWER** 저는 제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SADI(삼성디자인스쿨) 2학년이지만 현재는 휴학 중입니다.

**QUESTION** 참가하게 된 동기는?

**ANSWER** 작년 공모전에 참가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올해는 다행히 공모전이 개최하는 걸 미리 알게 되었어요. 일단 아우디 공모하면 상금도 중요하지만 타이틀이 중요하잖아요. 타이틀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우디도 좋아하거든요. 작년에 참가하지 못한 아쉬움도 컸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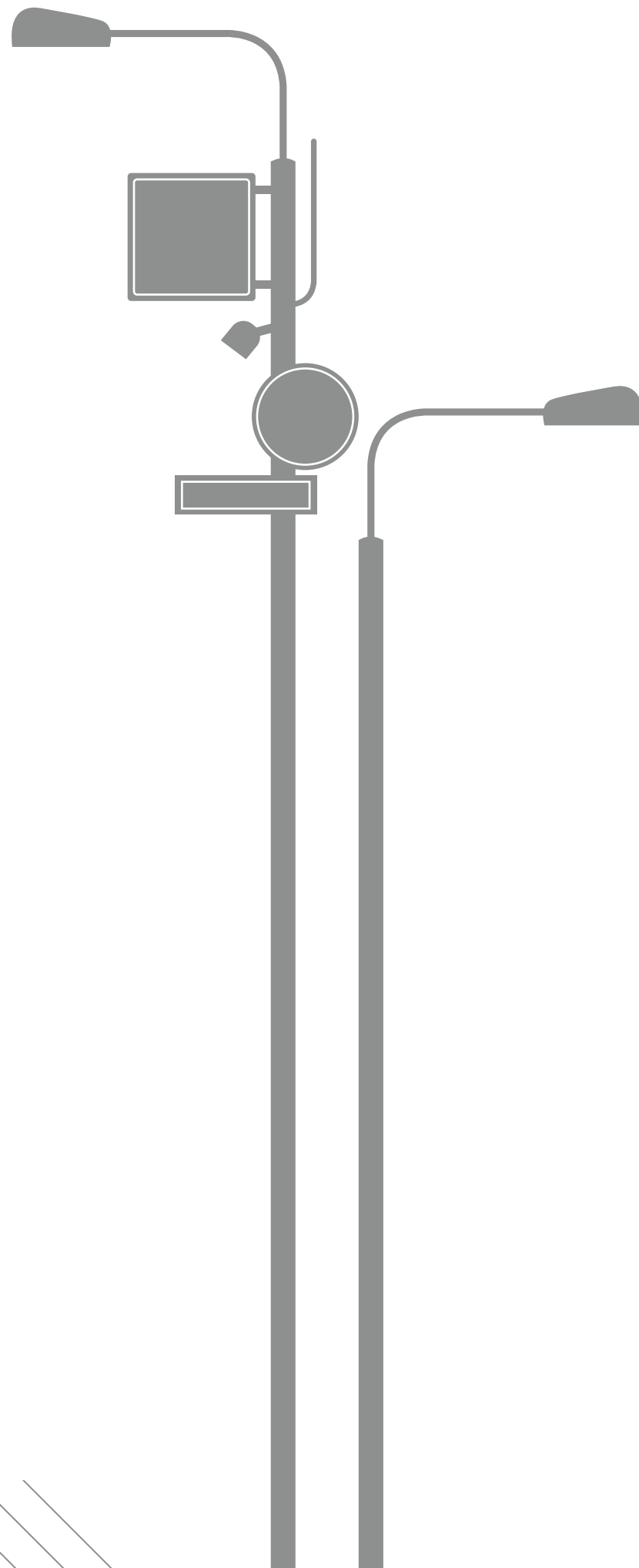
**QUESTION** 평소 아우디 브랜드 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ANSWER** 어떤 브랜드는 너무 클래식하고, 또 다른 브랜드는 최신 트렌드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아우디는 그 중간에 있어요. 지나치게 클래식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젊지도 않은, 균형감이 좋은 것 같아요.

**QUESTION** 작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ANSWER** 'Loung Stool'은 회사로비나 라운지 같은 공용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스톨입니다. 자동차를 앞으로 굴러가게 하는 물리적인 오브제로써의 바퀴와 또 다른 바퀴를 연결하는 축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습니다. 소형적인 측면에서는 아우디 차량들이 기하학적인 형태에 들어가는 과감한 직선들이 인상적인데 'Loung Stool'에서도 단순한 형태에 금속 재질의 띠를 둘러 아우디 특유의 직선에서 나오는 긴장감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QUESTION** 1차 심사 이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ANSWER** 초기 디자인에서는 의자의 **각도 조절이** 60도까지 조절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는데** 그럴 경우 의자의 안정성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 이후 최대 35도**만** 각도 조절이 가능하게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QUESTION** 가장 힘들었던 점은?  
**ANSWER** 구상 단계에서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또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딱 하나를 정하기 어렵다는 것. 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우디와의 철학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더 어렵게 하기도 했죠.

**QUESTION** 최종 작품의 완성도에 만족하는지?  
**ANSWER** 1차 평가 이후 목업 제작 과정에서는 최대한 의자라는 기능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초기 디자인의 개성이나 긴장감이 희석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Winners  
&  
Finalists

	PARK HOONMIN
	LEE EUNSANG SON YOONJI
	JIN YOUSEOK
	KIM DEOKKI KIM JAEHYEON
	LEE JEAHYUK JUNG PILKWON
	SHIM YONGWOO SONG YOUNGSUB
	JUNG UNA JUNG HEASOO
	LEE HOJEONG LEE JAEWOONG

KANG SUKMIN	
JUNG BOOGUN	
LEE DAGAM LEE YERIM	
KO JIWON LEE BOKYEONG	
JUNG PILKWON LEE JAEHYUK	
JOE CHUNGHEE LEE BOKYEONG	
HONG WOOK	
LEE HYEONCHEOL	

# Audi Design Challenge

펴낸일	2014년 12월 8일
펴낸곳	아우디 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청담동)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02-6009-0000
FAX	02-6009-0099
취재/편집	몽키랩 02-548-9703
디자인	본크리에이티브 02-2278-1940
사진	랄랄라스튜디오 02-548-1132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아우디 코리아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